

2018. 9. 2[일] ~ 9. 11[화]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기획행정위원회—
해외견문연수 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	1
II. 연	수	국	현	황	- 4
◆	오	스	트	리	아 - 4
◆	슬	로	베	니	아 - 7
◆	크	로	아	티	아 - 10
◆	형		가		리 - 13
◆	체			코	- 17
III. 일 자 별 · 장 소 별	주 요	전 문	내 용	-	21
◆	9 월	3 일	(2 일 차)	-	21
◆	9 월	4 일	(3 일 차)	-	22
◆	9 월	5 일	(4 일 차)	-	23
◆	9 월	6 일	(5 일 차)	-	24
◆	9 월	7 일	(6 일 차)	-	26
◆	9 월	8 일	(7 일 차)	-	29
◆	9 월	9 일	(8 일 차)	-	31
◆	9 월	1 0 일	(9 일 차)	-	32
IV. 우 수 사 례	분 석	및	정 책 제 안	-	33

-2018년 기획행정위원회-

해외건문연수 결과보고서

- ❖ 동유럽 의회 및 지방정부의 운영방식 비교견학과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분야 등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및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각종 유적지와 시설물에 대한 현장탐방을 통하여 습득된 자료를
- ❖ 우리시의 풍부한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8. 9. 2(일) ~ 9. 11(화) [7박 10일]
- 연수국가 : 동유럽(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 연수인원 : 11명(기획행정위원회 7명, 직원 4명)
- 연수임무
 - 동유럽 국가 지방정부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 수집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
 -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관한 자료 수집

연수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유 * 구	
2	부위원장	김 * 진	
3	위원	김 * 영	
4	"	신 * 해	
5	"	김 * 식	
6	"	이 * 주	
7	"	장 * 호	
8	전문위원	김 * 기	
9	주무관	이 * 미	
10	주무관	송 * 진	
11	주무관	소 * 만	

연수 임무 분담

조별	조장	조원	주요임무
단장	유 * 구	김 * 영	○ 연수 총괄 ○ 지방정부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 수집
1조	김 * 진	김 * 식 신 * 해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 수집
2조	장 * 호	이 * 주 소 * 만	○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관한 자료 수집
3조	김 * 기	이 * 미 송 * 진	○ 사진첩 제작, 특이사항 및 연수보고서 작성 등

연수 일정표

일자	지역	세부일정표	비고
제1일차 9/02(일)	익 산 인 천	○익산 출발(18:00) ○인천 국제공항 출발(23:55)	EK 323
제2일차 9/03(월)	두바이 오스트리아	○두바이 국제공항 경유 ○빈 국제공항 도착 ○<역사문화탐방> - 쉐부른 궁전, 슈테판 사원 등	EK 127
제3일차 9/04(화)	오스트리아	○<공공기관방문> - 빈 시청 방문	
제4일차 9/05(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역사문화탐방> - 미라벨 정원, 모차르트 생가 등 ○슬로베니아 블레드 도착	
제5일차 9/06(목)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공공기관방문> - 류블라냐 시청 방문 ○<관광자원견학> - 블레드 호수, 성 니콜라스 성당 등 ○크로아티아 리예카 도착	
제6일차 9/07(금)	크로아티아	○<공공기관방문> - 자그레브 시의회 방문 ○<관광자원견학>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반 엘라치치 광장	
제7일차 9/08(토)	크로아티아 헝가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동 ○<역사문화탐방> - 마차시 교회, 성 이슈트반 성당 등 ○<공공기관방문> - 헝가리 국회의사당 방문	
제8일차 9/09(일)	헝가리 체 코	○체코 프라하 이동 ○<역사문화탐방> - 프라하 성, 성 비트 성당 등	
제9일차 9/10(월)	체 코 두바이	○<관광자원견학> - 카를교, 화약탑, 천문시계탑 등 ○프라하 국제공항 출발 ○두바이 국제공항 경유	EK 140
제10일차 9/11(화)	인 천 익 산	○인천 국제공항 도착(16:55) ○익산 도착(21:30)	EK 322

II

연수국 현황

1. 오스트리아

● 현 황

- 국 명 : 오스트리아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 수 도 : 빈(Vienna, 약 183만명)
- 인 구 : 약 870만명
- 면 적 : 83,879km²(한반도의 약 2/5)
- 민 족 : 오스트리아계(73%), 슬라브계(8.2%), 터키계(2.5%), 독일계(2.3%)
- 종 교 : 가톨릭(64%), 개신교(5%), 이슬람교(8%)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9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G D P : 4,180억 달러

● 오스트리아 지도



● 오스트리아 개요

-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1918년 공화국, 1938년 독일에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했다.
-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다. 북쪽으로 독일 ·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 · 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 ·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며, 헌법에 영속적 중립성을 명시했다. ‘동쪽 제국(eastern empire)’이라는 뜻의 국명은 독일어(語)로 ‘Österreich’ 라고 하며, ‘Old German Ostarrichi’ 에서 유래했다. 행정구역은 9개주(Bundesland)로 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사회

- 같은 게르만계 민족으로 독일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민성은 차이가 크다. 그 이유로서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의 사회구성이 여러 인종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강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인, 특히 수도인 빈 시민들이 가지는 로마적 정서와 발칸적 격렬성은 독일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톨릭이고, 풍속 · 습관이나 연중행사의 많은 부분은 가톨릭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 하는 인사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고 말한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고 다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빼고는 이 나라 문화를 논의하기 어렵다. 특히 빈은 옛 제국(帝國) 안팎의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하여 독자적인 오스트리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 오스트리아 경제

- 오스트리아의 주요산업은 제철업, 금속가공업, 관광산업이다. 오스트리아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특색은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국영화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된 옛 독일 자산의 국가관리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토지이용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경지율은 17%에 불과하여 목초지 25%를 합쳐도 식량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은 꽤 높다. 농장당 농지면적은 24ha이며 농지면적 10ha 미만인 농장이 거의 반을 차지하며 소규모 영농(營農)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1997, 1998년의 농업부문 성장률은 0%로서 정체를 보였다.

● 오스트리아 문화

- 오스트리아 문화 중 음악은 독일 음악을 바탕으로 알프스를 비롯하여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유고슬라비아·이탈리아 등 인접국들의 민속음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받아들여 독일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 있는 리듬이나 밝은 선율을 가졌다. 빈필하모니 관현악단, 빈소년합창단이 유명하며,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개최되는 잘츠부르크음악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과의 공식 관계는 1963년 5월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4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3월에 사증면제협정(査證免除協定)이 체결되었고 1991년 3월에 한·오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 슬로베니아

● 현 황

- 국 명 : 슬로베니아 공화국(Republic of Slovenia)
- 수 도 : 류블랴나(28만명)
- 인 구 : 약 206만명
- 면 적 : 20,270km²(한반도의 1/11)
- 민 족 : 슬로베니아계(83%), 세르비아계(2%), 크로아티아계(1.8%)
- 종 교 : 로마가톨릭(57.8%), 이슬람교(2.4%), 동방정교(2.3%), 무교·기타(37.5%)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제 절충
- G D P : 490억 달러

● 슬로베니아 지도



● 슬로베니아 개요

- 유럽 발칸반도 북서부에 있는 나라로서 1918년 12월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일명 베오그라드왕국)의 일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하나가 되었지만, 1991년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와 함께 내전을 거쳐 독립하였다.
- 정식명칭은 슬로베니아공화국(Republic of Slovenia)이다. 알프스산지의 동쪽 산록에 자리잡고 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고산국가이다. 북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며, 국경의 일부가 남서쪽으로 아드리아해의 파란만과 면한다.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하였다. 아드리아해의 피란만을 둘러싸고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연안 출구의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은 182개주(obcina)와 11개시(mestna obcina)로 되어 있다.

● 슬로베니아 사회

- 슬로베니아는 공업의 발달이 가져온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왔으나, 유고슬라비아연방으로부터의 탈퇴 및 분리 후 세르비아와의 전쟁을 치러 경제가 침체되었다. 1991년 인플레이션율이 250%에 이르게 되어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교육은 7~19세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료이고,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으며 문맹률은 1% 이하이다.

● 슬로베니아 경제

-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서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지역으로,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6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공업화된 선진지역이었다. 한때 공업생산이 국민소득의 약 2/3를 차지했다. 구유고

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해체로 말미암아 원자재 공급원과 제품 시장은 상실하였으나, 구사회주의 경제권에 속한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중·동유럽 국가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산업별 인구 구성비는 농업 2.3%, 공업 34.1%, 서비스 63.6%이다. 전 국토의 약 50%인 101만km²가 산림이고 목장과 목초지를 포함한 농경지가 전 국토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 생산은 옥수수, 밀, 보리이며 그외에 포도·사과·올리브 등의 과일과 배추·시금치·호박 등이 생산된다. 목축은 소, 돼지가 주종을 이루고, 그밖에 닭과 말, 양이 사육되고 있으며, 우유도 생산한다.

● 슬로베니아 문화

- 슬로베니아의 문화는 발칸반도의 서북쪽 끝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게르만문화, 라틴문화, 슬라브문화 요소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특징을 지닌다. 먼저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슬로베니아인들의 문자해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다. 1518년 주리즈 달마틴(Jurij Dalmatin)은 성경을 슬로베니아어로 최초로 번역하고 아담 보히릭(Adam Bohoric)은 슬로베니아어 문법서를 저술하여 문화적 기초를 세웠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은 1992년 4월 슬로베니아를 승인하였고 1992년 11월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수도인 류블랴나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양국 간에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협정, 1997년 문화협력협정, 2001년 원자력안전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슬로베니아와 북한은 1992년 6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3. 크로아티아

● 현 황

- 국 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Republic of Croatia)
- 수 도 : 자그레브(80만명)
- 인 구 : 약 425만명
- 면 적 : 56,594km²(한반도의 1/4)
- 민 족 : 크로아티아인 89.6%, 세르비아인 4.5%, 기타
- 종 교 : 가톨릭(86.3%), 세르비아정교(4.4%), 이슬람교(1.5%), 기타(7.8%)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절충
- G D P : 550억 달러

● 크로아티아 지도



● 크로아티아 개요

- 유럽 발칸 반도 서부의 아드리아해(海) 동부에 있는 나라로서 1918년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왕국을 거쳐 제2차세계대전 후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국토가 해안 산지, 남부 구릉 및 동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구유고슬라비아연방의 해체와 함께 내전을 거쳐 1991년 6월 분리 독립하였다.
- 정식명칭은 크로아티아공화국(Republic of Croatia)이다. 북쪽으로 헝가리, 동쪽으로 세르비아, 서쪽으로 슬로베니아, 남쪽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국경을 접하며 서남쪽으로 길게 아드리아해에 면한다. 독립 선언 후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의 학대를 우려하여 연방 탈퇴를 반대함으로써 전쟁상태에 돌입하였고,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비아인들은 ‘크라이너’라는 공화국을 수립하여 연방군과 함께 크로아티아에 맞서 싸우다가 1994년 휴전했다.

● 크로아티아 사회

- 구(舊)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에 속하였던 슬로베니아와 함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했던 크로아티아는 독립과 내전으로 인하여 187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인접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부터 계속 난민이 유입하여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 크로아티아 경제

- 크로아티아는 과학과 기술이 일찍 발달하였으나 일찍 빛을 보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대적인 석탄 및 유전 개발로 전통적인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렇지만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에서 인접한 슬로베니아와 함께 중요한 선진 공업

지대를 형성하였다.

- 주요 산업은 섬유·석유·화학·기계·조선·식품·알루미늄제품·제지 산업 등이며 그밖에 치즈·설탕·맥주·담배·텔레비전·라디오 등이 생산되고 있다. 토지이용에서는 농경지가 156만 ha로 27.6%를 차지하고 산림이 201만 ha로 35.6%를 차지한다. 농업은 동부의 사바강·드라바강 유역의 평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농작물인 감자·옥수수·밀·보리 외에 포도·사과·올리브 등의 과일과 토마토·담배·해바라기 등이 생산되고 있다. 목축의 경우는 소·젓소·돼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닭·말·양도 사육한다

● 크로아티아 문화

- 크로아티아 문학에서 대표적인 작가는 15~16세기의 ‘유디타’라는 서사시를 쓴 마르코 마룰리치와 ‘로비냐’를 쓴 하니발 루치치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아우구스트세노아, 안테코바치치, 구스타브 마토슈, 아우구스트체사레츠, 베코슬라브 칼레브, 크를레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크로아티아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미술에서는 아드리아 해안 도시인 스플리트와 두브로브니크에 있는 중세교회 건축물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또 크로아티아 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판화이고, 음악에서는 첼리스트 야니그로와 자그레브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널리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92년 4월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승인하였고,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5년 무역협정, 2001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2년 5월에 크로아티아를 승인하였고 1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4. 헝가리

● 현 황

- 국 명 :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
- 수 도 : 부다페스트(174만명)
- 인 구 : 약 969만명
- 면 적 : 93,030km²(한반도의 2/5)
- 민 족 : 마자르인(85.6%), 루마니아(3.2%), 독일(1.9%), 기타(2.6%)
- 종 교 : 카톨릭(37.2%), 개신교(13.8%), 그리스정교(1.8%)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G D P : 1,635억 달러

● 헝가리 지도



● 헝가리 개요

- 유럽의 중앙 동부, 도나우강 중류에 있는 내륙국으로, 1001년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일부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갔으며, 1946년 공화제를 실시하였다.
- 정식 명칭은 헝가리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이다. 북쪽으로 슬로바키아, 북동쪽으로 우크라이나, 동쪽으로 루마니아, 남쪽으로 유고슬라비아·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한다. 1999년 NATO, 2004년 EU에 가맹하였으며,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250여만 명의 헝가리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전체 면적은 93,030 km²로,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한 온천국가이며 국토의 3/4이 저평원 지대인 평원국가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은 19개주(megye), 22개 카운티(megyei varos), 1개시(부다페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 헝가리 사회

- 헝가리는 무료의료제도·연금·가족수당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의료 및 연금은 사회보험에 의해 처리되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운영과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장애·과부·고아 등의 각종 연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 헝가리의 현대 교육제도는 1961년의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법령이 기본이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모든 교육 시설이 국립이고 무상교육이 제공되었으나,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된 후 국립대학은 1995년부터 소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년부터 1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초등교육 과정은 4년, 6년, 8년제가 있고, 중등교육 과정은 문법학교와 직업학교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고등교육 과정은 3, 4년제의 전문대학과 5, 6년제의 정규대학 과정이 있다.

● 헝가리 경제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형적인 농업국이던 헝가리는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공업국이 되었다. 1968년의 경제 개혁으로 인해 1974년의 공업생산은 전쟁 전의 10배를 초과하였으며, 1975년에는 공업 부문 종사자수가 전체 노동력의 37%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부유럽 여러 국가 중에서 소비물자가 가장 풍부한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5차 5개년계획(1976~1980)의 전반까지는 경제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980~1983년에는 수입원료 및 연료 가격의 앙등과 무역수지의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률이 1985년 1.0%, 1988년 0.5%로 계획을 밀돌았다. 대외채무는 1973년 10억 달러에서 국영기업의 채산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1993년 150억 달러로 늘어났다.
- 1990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후 자본주의 경제개혁에 따른 혼란과 IMF의 경제 안정화 계획에 부응한 긴축정책의 부작용,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수출 시장의 상실 등으로 1990년 이후 1993년까지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경제안정화조치에 따라 1994~1995년 2년 동안 2% 이상의 성장과 1996~1997년에는 3~4%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여 연간 4~5%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1999년 세계적인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공업 생산과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에도 5.2%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 헝가리 문화

- 헝가리어로 쓰인 초기 문헌은 종교 문서나 연대기(年代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학작품다운 국민문학은 16세기의 서정시인 B.발라시(Balassi)나 17세기의 서사시인 M.즈리니(Zrinyi) 등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 국민문학이 침체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의 열풍이 불어 뛰어난 시인과 작가가 배출되어 국민문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문학가로는 M.초코나이 비테즈, M.뵈뢰슈머르치, 극작가 S.키스팔루디, J.카토나가 손꼽힌다. 특히 카토나의 사극(史劇) 《뱅크 반 Bank Ban》(1821)은 헝가리 극단의 명작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까지도 무대에 올려진다.
- 헝가리 음악의 특징은 집시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 집시는 헝가리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음악은 헝가리 민속 음악과 통합되어 F. 리스트 등에 영향을 주었고 헝가리광시곡 등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전통민속과 서방 기독교 문화를 양대 기저로 하여 발전한 헝가리의 문화 및 예술 활동은 서유럽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는 1892년 6월 23일 조선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다. 헝가리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1948년 11월 동시수교를 맺었다. 이후 1989년 2월 다시 한국과 단독수교를 맺어 상주대표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북한과는 1998년 대사급 관계를 회복하였다.

5. 체 코

● 현 황

- 국 명 :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
- 수 도 : 프라하(131만명)
- 인 구 : 약 1,067만명
- 면 적 : 78,867km²(한반도의1/3)
- 민 족 : 체코인(64.3%), 모라비아인(5%), 슬로박인(1.4%), 기타(1.8%)
- 종 교 : 카톨릭(39.2%), 무교(34.5%), 기독교(1.1%), 기타(25.2%)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 G D P : 2,130억 달러

● 체코 지도



● 체코 개요

-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부터 독립하였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인위적으로 합쳐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고치고 1993년 1월 1일 평화적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개 공화국으로 서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 정식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북쪽으로 독일·폴란드, 서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공산주의 국가 중 최고의 생활 수준과 높은 문화를 유지한 공업국가이었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슬로바키아공화국과 연방제를 구성하였다가 1993년에 평화적으로 분리·독립하여 체코공화국이 되었다. 행정구역은 13개주(kraj), 1개 특별시(hlavni mesto)로 되어 있다.

● 체코 사회

- 체코의 교육은 취학 전 교육(3세~6세), 기초학교(6세~14세), 중등교육(14세~18세), 고등교육(18세~23세)으로 나누어진다. 취학 전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학부모가 교육비의 30%를 부담한다. 기초학교는 초등 6년과 초기 중등 3년의 9년제로, 6세부터 이후 9년 간의 기초학교 교육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한다. 기초학교단계는 1~5학년까지의 전기 단계와 6~9학년까지의 후기 단계로 나뉜다. 국공립은 무상교육이며, 사립은 유상교육이다. 자유화가 된 1990년에 교육법이 수정되어 4년 이상 교육 기간의 김나지움(gymnasium)이 설립되었다. 김나지움에는 기초학교의 전기 단계 이수 후에 전학이 가능하다. 이는 1948년 당시의

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김나지움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기준 아동의 11%에 달한다.

-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실시되어왔다. 직업과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연금·건강보험·농민사회보장 등이 기본적인데, 종래에는 연금과 농민사회보장은 국고부담이고, 모든 노동자와 피고용자의 보험혜택과 진료 및 치료가 무료였으나, 1993년 1월부터는 모든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보험출연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보건·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다. 이러한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낳는 주요인이 되고 유럽연합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세제 및 사회복지부문의 개혁(복지지원, 의료, 연금)을 추진 중이다.

● 체코 경제

- 체코의 경제는 구(舊)체코슬로바키아(특히 체코 지역의 보헤미아 지방)의 경제적 기반 위에 발달하고 있다.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부터 ‘제국의 공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공업이 발달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유럽 6대 선진공업국가 중의 하나에 속할 정도로 높은 국민생활 수준을 유지하였다.
- 1995년 8월 58개 주요회사에 대한 민영화에 착수하였고 민주화 이후 대서방 무역을 강화하여 EU회원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와 함께 결성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국가들은 1995년 역내관세를 1997년 1월부터 철폐하였다. 1995년 동구권에 서는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 체코 문화

- 체코의 문화는 독특하고 그 역사가 길다. 1348년에 설립된 프라하대학교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프라하대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당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요하네스 후스에 의해 다수의 문학 작품이 체코어(語)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또한 건축가인 페트르 파를레르시는 프라하의 명물인 성(聖)비트성당과 카를루프(Karlův)다리를 설계하였다. 17세기 초반 체코 지역이 30년 전쟁으로 분열된 이후 약 150년 동안 체코어로 된 성경의 구독이 금지되어 다수의 신교도들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체코를 떠나야 하였다. 이때 교육개혁자인 아모스 코메니우스(Jan Amos Comenius)도 강제로 모라비아로 추방되었다. 당시 그는 일련의 교과서들을 편찬하였는데 이 책이 거의 2세기 동안이나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었다. 그가 쓴 《The Visible world in pictures》라는 교과서는 그림이 삽입된 최초의 교과서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체코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와는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 같은 해 6월 13일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체코 정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클라우스 총리가 내한하여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1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 9월 3일(2일차)

● 쾰른 궁전

- 18세기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으로 세계 최초의 동물원(1752)이 있는 바로크 양식의 쾰른 궁전과 정원은 수많은 예술 양식의 걸작이라 할만한 작품들이 종합 예술 개념으로 훌륭하게 드러나 있다. 쾰른 궁전과 정원은 수백 년에 걸쳐 우수하게 보존·변경되어 더욱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이곳의 다양한 변화에는 합스부르크 왕국의 취향, 관심, 야심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대형건축물은 아니지만 금마 미륵사지를 잘 가꾼다면 쾰른 궁전과 같이 백제고도를 충분히 재현하여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9월 4일(3일차)

● 빈 시청

- 빈 1구 인네레슈타트의 프리드리히 슈미트 광장 에 위치한다. 1872년부터 1883년에 걸쳐 프리드리히 본 슈미트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빈 시장 및 빈 시의회가 집무를 수행하는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시청 광장을 개방하고 있어 문화공간으로 이용되는데, 여름에는 필름페스티벌, 겨울에는 강림절 행사인 크리스마스마켓(Christmas Market) 등 일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린다. 또한 3,0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도로위에는 보행자 중심의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 우리시는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벤치마킹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청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9월 5일(4일차)

● 미라벨정원

- 잘츠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으로, 중앙역에서 라이너슈트라세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오른쪽에 있다.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조성하였으며,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과 많은 꽃들로 잘 장식되어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멀리 보이는 호헨잘츠부르크성(城)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 우리시에는 각종 체육공원이나 소규모 썸지공원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긴 하나,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체육공원을 기점으로 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9월 6일(5일차)

● 류블라나 시청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됨에 따라 유고슬라비아왕국의 슬로베니아지역의 비공식적인 수도가 되었고, 1929년 유고슬로비아 왕국의 드라브스카 바노비나(Dravska banovina)의 공식적인 중심도시가 되었다. 1941년에는 이탈리아에, 1943년에는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수도가 된 이후 현재까지 슬로베니아의 수도이다. 주요 유적으로는 류블라냐성(Ljubljana Castle)과 프레셰렌(Prešeren)광장 등이 있다.
- 다만, 연수기간 중에 시청 건물 전체가 보수중이어서 청사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탐방이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교류의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 블레드 호수

-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냐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블레드 호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빙하호(氷河湖)로 호수의 한 가운데에는 블레드 섬이 있으며 이 섬에는 15세기에 지어진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다. 이 교회 내부는 1470년에 제작된 고딕 양식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가구들이 보존되어 있다. 붉은 군대의 승리를 묘사한 벽화로 덮인 연회장 등 공산주의의 과거를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요소들도 남아 있다.
-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등 문화유산이 많은데 비해 블레드 호수와 같이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관광자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 9월 7일(6일차)

● 자그레브 시의회

-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크로아티아 북부 내륙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중유럽 도시로 1557년 이래 크로아티아 행정·문화의 중심지이자 수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가교이자 최대 공업 도시로서 육상과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다.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에 수도 베오그라드(Beograd)를 잇는 제2의 도시이자 연방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 자그레브 시의회 부의장 및 의원, 직원들과 만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그레브 시의회와 익산시의회 차이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협력을 다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뜻깊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플리트비체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수많은 폭포로 연결되는 16개의 호수가 유명하다. 각종 나무들이 뻗뻗하게 자라는 짙은 숲 사이로 가지각색의 호수와 계곡, 폭포가 조화되어 원시림의 풍경을 그려낸다. 여기는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으로 나뉜다. 상류부분에 위치한 백운암 계곡의 호수들의 신비로운 색과 울창한 숲의 조화가 가장 신비로운 장관이며, 하류부분에 위치한 호수와 계곡들은 크기가 작고 얇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등 문화유산이 많은데 비해 플리트비체와 같이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관광자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반 엘라치치 광장

- 17세기에 건설된 오스트로-헝가리 스타일의 광장으로 시내 중심부에 있다. 광장 주변에는 클래식 양식과 모던 양식 등 서로 다른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들어서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은 1827년에 지어진 건물이며, 아름다운 파스텔 색상의 오픈 카페와 상점이 여럿 들어서 있다. 또한 주민들의 안식처이며 만남의 장소이자 자그레브 관광의 출발점이다.
- 광장 중앙에는 1866년에 오스트리아 조각가가 만든 동상이 세워졌는데, 오스트로-헝가리 점령 당시 총독을 맡았던 반 엘라치치 백작의 상이며 말에 앉아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상은 칼이 뿔죽하고 날카로워 마치 보는 이의 눈을 찌를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광장 이름은 이 동상에서 유래됐다.



6. 9월 8일(7일차)

● 성 이슈트반 성당

- 헝가리의 초대 국왕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인인 성 이슈트반을 기리기 위해 1851~1906년 사이에 세운 성당으로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성당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성당이며 앵겔스 광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성 이슈트반 대성당은 건축 양식으로는 전형적인 네오 르네상스 양식 건물이다. 전체 구조가 그리스 십자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중앙 돔이 있다. 한 번에 8,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50종류 이상의 대리석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 성당의 정문 위에는 오른손에 홀을, 왼손에 구슬을 들고 있는 성 이슈트반의 동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제단의 뒤쪽에 가면 성 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봉헌된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 있다.



● 헝가리 국회의사당

-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국회의사당의 외벽에는 헝가리 역대 통치자 88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지붕에는 1년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첨탑이 있다. 카펫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3,456m에 이른다고 한다. 1956년 혁명 당시 부다페스트 대학생과 시민들이 소련군의 철수와 헝가리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연좌데모를 벌이다가 소련군의 총탄에 쓰러져간 곳으로 헝가리 민주화의 현장으로도 유명하다.
- 다뉴브강을 따라 건설된 이 건물의 길이는 268m이며 폭은 가장 넓은 곳이 123m이다. 현재 헝가리 의회는 단원제이지만 건축 당시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회의사당은 좌우 균형을 철저히 계산한 건축물로 지어졌다.



7. 9월 9일(8일차)

● 프라하 성

-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물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성이다. 9세기 말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카를 4세 때인 14세기에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 양식이 가미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변화하다가 18세기 말에야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 1918년부터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내부 장식과 정원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왕궁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정교한 조각과 높이 솟은 첨탑,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유럽에서도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라하뿐 아니라 체코·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이며, 특히 성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8. 9월 10일(9일차)

● 성 비트 성당

- 성 비트 성당은 프라하 성의 제3정원에 있다. 블타바 강 너머에서 보일 만큼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며 프라하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9세기에 바츨라프 1세가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이 성 비트 성당의 원형이고, 이후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축되었다. 지금의 모습은 14세기 카를 4세가 고딕 양식으로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갖추어진 것이다. 건설에 착수한 뒤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후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중단되었다가 20세기에 이르러 지금의 성 비트 성당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 주제단의 뒤쪽에는 7개의 예배당이 있고 그중 중앙의 마리아 예배당의 스테인드글라스가 특히 아름답다.



● 우수사례 분석 및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8. 9. 2(일) ~ 9. 11(화) 매일 19:30 ~ 20:30
- 장 소 : 호텔식당 등 적의장소
- 참석인원 : 연수단 11명 전원
- 진행방법 : 해당일별 전문소감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제안

● 우수사례 분석 및 정책제안 내용

- 관광자원의 개발은 관광자원의 매력과 관광시설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개발, 구성, 관리하여 관광객의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관광자원의 특정한 매력 창출과 관광지 이미지의 특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매력성과 관광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함.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광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관광객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함.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연수를 통해 다녀온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과 같은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유산은 관광자원화가 손쉬울 수 있으나, 우리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같은 문화유산은 역사적, 미학적 요소로만 관광객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시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체험과 숙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오늘날의 관광형태는 자아의식의 확대, 개인의 개성 중시, 개인주의 사상의 발달과 같은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단순히 관광대상을 보는 정적인 상태를 벗어나 관광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고 주민들과 직접 접하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동적인 관광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관광자의 욕구가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중시하며

다양화됨을 시사하고 관광상품 또한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참여와 체험위주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방문한 미라벨 정원이나 블레드 호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우리시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험거리의 발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관광객은 관광 일정중의 많은 시간을 숙박시설에서 보내게 되며, 여행 중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숙박시설에서의 수면과 휴식을 통해 해소하므로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숙박시설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임. 하지만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숙박시설은 함라한옥체험단지가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음.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과 블레드 호수 주변도 문화적 특색을 보여주는 숙박시설은 없었으나, 깔끔하게 정비된 대규모 숙박시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음. 우리시가 지나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숙박시설의 마련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대의 관광은 3차산업의 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없는 공장'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타산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자원 소모율이 낮은 무공해산업으로 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국제친선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재의 보호·보존과 균형있는 국토개발에도 기여도가 큼.
- 21세기 관광산업의 성공비결은 무공해 청정이라는 환경이 유인력이 큰 관광자원으로써, 익산지역은 마한과 백제의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농경문화의 바탕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자연자원과 마한·백제문화의 유물·유적이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이 산재하여 있지만, 자연자원에만 의존하는 정책만으로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가 없다.

- 따라서, 관광개발은 관광자원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관광자원의 조성·정비, 교통수단의 건설, 숙박시설의 건설과 부대시설 등을 통하여 관광개발에 따라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고용이 확대되며, 자연과 문화재가 보존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먼저 개발계획이 자연과 문화재의 보존에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이를 반영하여 익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식도락의 즐거움과 멋을 알리는 관광자원이 개발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개발과 우리시의 자랑인 미륵사지나 왕궁탑 등을 알릴 수 기념품 제작이 절실히 필요하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종합적 시책 발굴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함.